

KAPA NEWS & FOCUS

협회 · 연구원 춘계 야유회 실시

협회와 연구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춘계야유회를 지난해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항어촌계에서 실시하였다. 일회성 자매결연이 아닌 도항



어촌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자매결연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는 일환으로서 해변가 오물수거 등을 실시하였으며, 협회 및 연구원의 임 · 직원이 함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서동기 부동산이사 국회 등 학술세미나 참석

서동기 부동산이사는 지난 5월 3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주최한 부동산거래 선진화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최근 부동산시장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부동산전문가로 자처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지가폭등의 일본의 예를 보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미국의 경우 중개사시험은 실무위주로 시행되며 우리나라도 실무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건설교통부와 매일경제신문 · mbn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7 부동산거래 선진화 캠페인' 중 하나로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서동기 부동산이사는 김종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후원으로 지난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반값 아파트 공급정책의 허와 실'의 정책토론자로 참석하여 "반값 아파트 이른바 대지임대부와 한매조건부 분양방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관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제5회 한 · 일 감정평가협력회의 개최

양국 업계간의 교류증진 및 정보를 교환하기로 체결한 협정에 따라 올해로 5회를 맞은 한 · 일 감정평가협력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5월 10일 ~ 5월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5회 한 · 일 감정평가협력회의에는 우리측 공식 대표단과 일반참가단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일본부동산감정협회 요코스카 히로시 회장을 포함하여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5월10일 밤의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전환기 감정평가업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양 협회장(김상윤 한국감정평가협회장, 요코스카 히로시 일본부동산감정협회장)의 기조강연과 제주대학교 송성대 교수의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이어 시작된 분과회의는 각각 '타 전문직종과의 업무제휴 방안'과 '새로운 분야로의 전문성 확대'를 주제로 두 개의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분과(타 전문직종과의 업무제휴 방안)는 박정열 감정평가사(나라법인), 일본의 모리오카 다이ске 감정사와 에조 코이치 감정사가 발표하였고, 제2분과(새로운 분야로의 전문성 확대)에서는 한국측에서 방경식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와 김형순 감정평가사(하나글로벌법인), 일본측에서는 후쿠다 카츠노리 감정사가 각각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협력회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 행사였으며, 2009년 제6회 한 · 일 감정평가협력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1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제1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인터넷 접수 등으로 협회에서 실시하였다. 1차시험 접수자는 5,877명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고, 2차시험은 923명이 접수하여 전년대비 49% 감소하였으며, 1,2차 총 6,000명이 접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차시험은 7월 1일(일) 서울대학교에서 치르며, 2차시험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합격기준은 1,2차 시험 모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7월 27일 건설교통부 및 협회 홈페이지와 전화 자동응답안내를 통하여 발표되며, 제2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12월 14일 홈페이지, 전화자동응답안내, 관보 및 서울신문 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